東洋學 第87輯(2022年 4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의 기원 고찰

-투루판과 간다라 지역의 불탑을 중심으로-

이 해 주*

▌국문초록▐

투루판 高昌故城과 交河故城의 불탑 중에는 황화 유역의 唐代 塼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탑이 존재한다. 방형 불탑의 4면에 다수의 불감을 만들어 많은 불상을 봉안하는 특수한 형태의 土塔이 그것이다. 특히 고창고성의 大佛寺 불탑은 탑의 앞면에 얕은 감실을 만들어 대형불상 1구를 안치하고, 나머지 3면에 크고 작은 감실을 만들어 소형 불상들을 봉안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이글에서는 이처럼 全面에 불상을 안치한 불탑의 양식적 기원을 고찰하기 위해, Ⅱ장에서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의 대불사 불탑 및 인근 지역에 건립된 유사한 양식의 불탑을 살펴봤고, Ⅲ장에서는 간다라 지역의 불탑 중 조울리안 사원지 유적과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 양식의 불탑들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불상을 불탑과 결합하는 양식은 간다라에서 기원했음을 파악했고, 이처럼 새로운 양식의 불탑을 만듦으로써 불탑과 불상이 서로 유리된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상징 면에서 동일하다는 관념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간다라 지방이 불상의 탄생지라는 사실, 즉 불상 조형을 시작한 역사성이 이 지역 불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Ⅳ장에서는 투루판과 간다라 불탑과의 비교를 통해 불탑의 4면에 불상을 안치한 탑의 특징을 구명했다. 양자가 공유하는 건탑 기법의 배경으로 투루판과 간다라의 자연환경을, 불탑의 4면을 수많은 불상으로 장엄하는 양식의 배경으로 千佛信仰을 지목했다. 이러한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으로는 불탑의 정면에 표현된 대형 감실과 그 안에 봉안되었을 대형불상의 존재를 꼽았다. 간다라 지역의 불탑에서는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처럼 탑의 정면에 대형불상이 봉안된 경우가 파악되지 않고, 그러한 사례는 아잔타 석굴 19굴과 26굴의 불탑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은 아잔타석굴에서 시작되어 카스의 모르 유적과 쿠차의 키질석굴 벽화를 거치며 전승돼, 고창고성의 대불사 불탑을 위시한 교하고성과 그 일대에 부활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제어] 투루판,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불탑, 全面에 불상을 결합한 불감형 불탑, 간다라, 조울리안 스투파, 아잔타석굴, 모르 유적, 키질석굴 벽화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연구전담 조교수 / hj12030938@dankook.ac.kr

목 차	
Ⅰ. 서 론	Ⅳ. 형식 기원의 문제
Ⅱ. 투루판 지역의 불탑	Ⅴ. 결 론
Ⅲ. 간다라 지역의 불탑	

Ⅰ. 서 론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불탑의 양상은 대체로 누각식탑(樓閣式塔), 밀첨식탑(密檐式塔), 정각식탑(亭閣式塔), 화탑(花塔), 복발식탑(覆鉢式塔), 금강보좌식탑(金剛宝座式塔)으로 분류된다.[1] 이렇게 설정된 카테고리는 대부분의 중국학자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크로드 상에 위치하는 투루판 지역에는 위와 같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2]이 건립되고 있어 주목된다.[3] 즉, 투루판의 역사를 대변하는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내에 건립된 대불사 불탑이 그것이다.

고창고성(高昌故城)은 중국 신강성 투루판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二堡乡과 三堡乡에 걸쳐 건립된 성으로, 투루판 분지에 남아있는 성곽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西漢에서 元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중심지였고, 高昌國 시대(460~657)에는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성곽의 둘레는 5.4km,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교하고성(交河故城)은 沟牙강의 물길이 좌・우 두 줄기로 흐르면서 형성된 분지 상면에 건립된 토성이다. 기원전 2~5세기 걸쳐 車師人이 세운 차사왕국의 도성이라 알려졌으며, 전체 면적 47만㎡의 성안에 민가, 행정시설, 불교사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두 성에는 모두 불교사원이 있고, 각 寺域에는 여러 유형의 불탑이 건립되어 있다.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의 불탑 중에는 방형의 평면을 구축하고, 탑신의 4면 전체에 불감을 개설해 불상을 봉안한 특수한 형태의 土塔이 존재한다. 이들은 흙벽돌로 기단과 탑신을 구축한 후, 그 표면에 진흙을 도포하여 코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4]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4면에 모두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봉안한 탑의 형식 자체이다. 이러한 형식은 唐代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의 전탑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

1) 朱耀廷 外,『古代名塔』, 遙寧師範大學出版社, 1996, 20~31쪽. 이에 반해 肅黙은 樓閣式塔・密檐式塔・亭式塔・異形塔으로 구분하고 있다 肅黙主編,『中國建築藝術史』, 文物出版社, 1999, 332~340쪽.

2) 중국에서는 신장지역에 건립된 불탑의 평면구조를 주변 건축 환경에 따라 塔院式建築, 塔狀層龕式佛堂, 塔林式建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模拉克 外,「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建筑学报』S1期, 2015을 참고할 것. 塔狀層龕式佛堂은 말 그대로 '탑 형태의 다층식 불당'을 뜻하는데, 이는 탑을 佛堂으로 이해한 중국적 관념이 강하게 투영된 명칭이기에, 이글에서는 주 고찰 대상인 이러한 형식의 탑을 양식에 따라 '탑의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이라 지칭했음을 밝힌다.

3) 중앙아시아의 동쪽에 해당하는 투루판은 현재 중국에 편입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간다라와 페르시아 문화 등을 중국에 앞서 수용하며 여러 문화권의 영향에 노출된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특성이 나타난다(투루판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는 민병훈,「투르판 아스타나 출토 진묘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묘수 소개를 겸하여」,『고고학지』17, 803~804쪽 참조). 7~8C 唐代 조성된 석굴에 표현된 불상에도 간다라 양식이 구현되었고, 당대 건립된 불탑에도 간다라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교하고성 내 塔林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생각한다.

4) 흙벽돌로 기단과 탑신을 구축하여 표면에 고운 진흙을 바르는 기법은 실크로드 상에 조성된 불탑 대부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 불탑사에서 투루판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매우 특이한 양식의 불탑임에도 불구하고,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에 대한 연구는 고창고성의 경우 대불사 불탑의 병충해와 연관된 극히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진행되었고,[5] 교하고성 불탑은 139기의 불탑의 현황과 塔林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실시된 정도이다.[6] 더불어 중국의 불탑을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에서조차 소위 탑상층감식불당으로 지칭되는 불탑의 양식과 그 기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7]

그런데 이 유형의 불탑은 실크로드 상에 건립된 석굴의 벽화에 그려진 불탑 양식은 물론 간다라 불탑과도 강한 친연성을 띠고 있어 중국과 간다라 지역 불탑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탑의 양식과 기원에 대한 고찰은 중국 불탑의 발달사에서 간다라의 불탑 양식이 서역을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정착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비록 간다라(2~3C)[8]와 투루판(6~8C)에 건립된 탑의 시차가 상당하지만, 실크로드 상에서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이 남아있는 곳은 투루판이 유일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 기착지에서 이와 유사한 탑 형식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점이지대의 경유 양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양 지역 탑의 직접 비교가 유일한 방법이다.[9]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글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대불사 불탑 및 인근 지역에 건립된 유사한 양식의 불탑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간다라 지역의 불탑 중 조울리안 사원지 유적(Jaulian site)과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 양식의 불탑들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Ⅳ장에서 투루판과 간다라 불탑과의 비교를 통해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의 특성을 구명하겠다.

---

5) 陆继财 外, 「高昌故城西南大佛寺遗址发育主要病害」, 『吐鲁番研究』, 吐鲁番学研究院, 2018. 张卫喜 外, 「高昌故城西南大佛寺结构病害分析与加固」, 『工業建築』, 2007.

6) 李尚, 『交河故城的形制布局』, 文物出版社, 2003. 欒睿, 「交河塔林與密教東漸」, 『西域研究』, 2000; 欒睿, 「交河塔林與密教東漸 2」, 『敦煌研究』 67, 2001. 이 불탑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박경식, 「교하고성 내 불탑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54, 2020을 참고할 것.

7) 朱耀廷 外, 『古代名塔』, 遙寧師範大學出版社, 1996; 肅黙 主編, 『中國建築藝術史』, 文物出版社, 1999; 張馭寰,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张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常青, 『中國古塔』, 陝西人民美術出版社, 1998; 羅哲文, 『中國古塔』, 中國青年出版社, 1985; 『中國古塔』, 河北少年儿童出版社, 1991.

8) 간다라 지역에 건립된 불탑 중 이와 같은 양식을 지닌 불탑은 조울리안 사원지 유적(Jaulian site)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9) 물론 투루판의 불탑에 앞서 북량시대 양주지방을 중심으로 제작된 북량탑(394~439)과 운강석굴의 중심주탑 · 탑형부조(5C)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북량탑이 간다라탑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점은 기존 연구를 통해 널리 인정되었고, 이러한 북량탑의 제작자들처럼 간다라 석탑에 대한 소양을 갖춘 예술가들이 운강의 석굴 조영에 참여했을 가능성 또한 꾸준히 언급되고 있듯(양은경, 「중국 운강석굴 상부 북위 불교사원지의 가람배치와 동서 문화교류」, 『한국상고사학보』 92, 2016, 70~85쪽; 이해주, 「운강석굴의 간다라 모티프와 그 함의: 탑형부조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56, 2021, 200~203쪽), 이들은 모두 간다라 불탑에 그 양식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투루판의 불탑보다 먼저 조성된 북량과 운강석굴의 불탑이 투루판 지역의 불탑과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건립된 불탑의 양상이 각각 독특하게 전개된 탓에 영향 관계를 논하기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탑에 뚜렷한 간다라양식이 나타나는 지역별 시기가 실크로드 노선상의 도시유적 분포와 도식적인 선후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방 흐름이 아닌 상호작용이라는 문화교류의 속성과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지역적 역량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투루판 지역의 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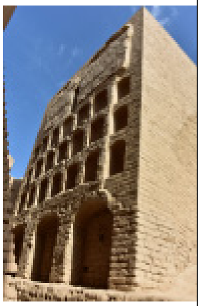
현재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내 불교 사원지에 남아있는 탑들은 唐代(6~8C)에 조성된 불탑으로, 늦어도 8C 이전에 건립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이 장에서는 평면이 방형을 이루고, 4면에 감실을 마련하여 불상을 모신 사례를 대상으로 불탑과 불상의 재질 및 특징 등을 파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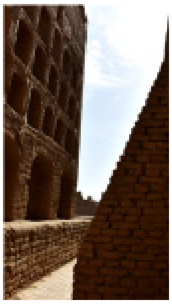
1. 고창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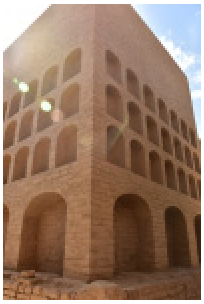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6~8C)은 성내 서남쪽에 위치하는 대불사 사역 안에 흙벽돌로 구축된 담장에 둘러싸여 축조되었다. 담장과 마찬가지로 불탑도 흙벽돌로 조성되었는데, 높은 장방형 기단을 구비하고〈사진 2-1〉 상면에 불감이 개설된 방형의 탑신을 두었다. 불탑의 벽체에는 고운 진흙을 발랐으며 탑신의 4면에 감실을 마련했다. 감실은 탑신의 정면에 거대한 주형 감실 1개〈사진 1 · 1-1〉, 좌 · 우 · 후면에 아치형 감실이 각 24개씩 조성되었다〈사진 2 · 3〉. 주형 감실 앞에는 거대한 불상과 대좌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0]

〈사진 1〉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 정면

〈사진 1-1〉 정면 감실


〈사진 2〉 좌측 벽감


〈사진 2-1〉 기단과 답도


〈사진 3〉 뒷면 · 우측 벽감

탑신의 전면을 제외한 3면에 4층으로 배열된 아치형 감실의 규모는 두 종류로 나뉘며, 1층을 이루는 탑신 하단부의 커다란 감실 세 개는 2~3층의 감실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정도 크다. 이 감실 내벽에 목심을 넣었던 구멍과 함께 조상을 벽에 기대어 고정했던 흔적이 남아있다〈사진 4〉. 탑신에 개설된 목심 구멍을 볼 때 입상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부의 소규모 감실은 한 층에 7개씩 3층을 이뤄 21개가 배치되었다. 감실 내부에는 하단에 결가부좌한 좌상의 양 무릎을 이루었던 소조상의 조각과 벽면에 채색된 원형 두광 등의 흔적이 남아있어〈사진 5〉, 벽면

10) 전면에 배치된 불상은 완전히 멸실된 탓에 조상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주형거신광배 형태로 조성된 감실의 존재에서 이곳에 봉안되었을 입상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에 등을 대고 앉은 자세의 불상을 별도로 제작해 봉안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불탑은 탑신의 4면에 감실을 만들어 1개의 대불상과 72개의 소불상을 모셨고, 불탑을 둘러싼 담장과 불탑 사이에 흙벽돌로 구성된 답도는 이 탑상층 감식불당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임을 알 수 있다〈사진 2-1〉.

〈사진 4〉
벽감 하단부 감실 내부

〈사진 5〉
벽감 상단부 소형 감실

이상의 검토를 근간으로 건립 당시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불탑의 前面에 대좌를 마련하고, 탑신 전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주형거신광배를 조성하여 대형 입상을 봉안했다. 둘째, 탑신 3면의 하단에 감실을 마련하여, 전면 입상보다는 소형의 입상을 모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3면의 탑신 하단부에는 입상을 안치하고, 상층부를 다시 3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는 7구씩 총 21구의 소형 좌불을 안치했다. 감실 내벽 상단에 둥근 윤곽의 채색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원형 두광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불사 불탑은 4면의 탑신 전체에 불상이 봉안된 매우 특이한 양식의 불탑임이 파악되는데, 이러한 측면은 중원 지방의 어떤 불탑에서도 볼 수 없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2. 교하고성

〈사진 6〉
교하고성 대불사 불탑 정면

〈사진 7〉
대불사 불탑 측면

〈사진 7-1〉
탑신부 감실

〈사진 7-2〉
감실 내 불상

교하고성에는 모두 139기의 불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1] 이중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과 같이 탑신의 4면에 다수의 감실을 개설하고 그 내부에 불상을 봉안한 불탑이 확인된다. 성내 대불사의 불탑(6~8C)이 그것인데, 이 불탑은 넓고 높은 장방형 기단을 두고 상면에 방형 탑신(하층)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불감이 조성된 탑신(상층)을 올렸다〈사진 6〉. 흙벽돌로 축조한 불탑의 벽체는 고운 진흙을 발라 틈새를

11) 李尚, 『交河故城的形制布局』, 北京: 文物出版社, 2003.

메꿔 매끈하게 마무리했다. 탑신 상층부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존하는 탑신 부분을 볼 때, 네 벽면에 모두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봉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면을 상하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면에는 여래 개의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모셨는데, 동쪽·북쪽 면 상단의 불감에서 불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 7-1〉. 불상은 모두 소조불이며, 잔존 형태가 가장 온전한 불상의 경우〈사진 7-2〉, 표면에 고운 진흙을 입힌 자국과 절단된 목과 손목에 뚫린 구멍에서 목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불상이 유실된 벽감의 내벽 중앙에서 관찰되는 목심을 꽂았던 흔적으로부터, 소조불을 별도로 만들어 감실에 봉안했을 것이라 추정된다.12)

〈사진 8〉	〈사진 9〉

8. 대불사 서편 소형 불탑 : 감실
9. 동북소사 불탑 기단 : 계단과 감실

이상에서 살펴본 교하고성 대불사의 불탑은 파손이 심해 전체적인 형상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고창고성의 불탑에서처럼 탑신에 감실을 조성하고, 그 안에 불상을 안치했던 사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하고성에서는 탑신의 4면에 각 1구씩 불상을 조성했던 불탑의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불사 서편에 분포하는 소형 불탑은 3면이 벽체로 둘러싸인 구도 속에서 낮은 방형 기단을 두고 상면에 같은 형태의 높직한 탑신을 조성하여, 탑신의 각 면에 1개의 감실을 두었다〈사진 8〉. 비록 현재 내부에 안치된 불상을 볼 수 없지만, 내벽에 목심을 고정했던 구멍이 관찰되므로, 별도로 제작한 불상을 각 면에 1구씩 사방불로 배치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13)

동북 소불사의 불탑은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있으나, 방형 기단의 4면에 모두 감실과 계단을 구축했던 흔적이 확인된다〈사진 9〉. 감실 내벽에 해당하는 기단 면석을 수직으로 평편하게 다듬은 방식과 좌우에 세웠던 벽체의 잔재를 통해, 별도로 소조상을 제작해 내벽에 붙여 안치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Ⅲ. 간다라 지역의 불탑

간다라 지역에 건립된 다르마라지카(Dharmarajika, 1~2C), 조울리안(Jaulian, 2~3C), 모라모라두(Mohra Morade, 3~4C) 등의 사원지14)에는 앞서 살펴본 투루판 지역의 불탑과 같은 양식을 지닌 탑이 건립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조울리안 사원지에 이러한 경향이 가장 본격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 장에서는 조

12) 박경식, 앞의 글, 2020, 264~265쪽.
13) 위의 글, 262~263쪽.
14) 조울리안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불탑의 모든 면에 불상이 새겨진 것은 아니나, 다르마라지카 메인 스투파·J1 스투파나 모라모라두 유적 등 간다라 불탑에서 기단과 탑신에 불상을 부착한 예가 남아있다는 데 주목하여 불탑 부조상의 기원을 간다라에서 찾은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박경식, 「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 『동양학』 67, 2017, 135~165쪽.

울리안의 석탑 중 배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5)]

조울리안 사원지(Jaulian site) Ⅱ에 대한 발굴조사는 동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해 2005년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유적은 1~2C 내지 3C 초기 쿠샨시대에 건립된 사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16)] 이 유적지의 메인 스투파 주변에는 모두 23기의 배탑[17)]이 축조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방형 기단의 4면에 감실과 불상을 조성했다.[18)] 비록 대부분의 탑신부가 훼손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잔형에 근거할 때, 본래는 원구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0~11〉. 23기의 배탑은 감실을 구비해 그 안에 불상을 부착하거나, 감실 없이 불탑의 벽체에 직접 불상을 부착하거나, 혹은 양자를 혼합한 방식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조울리안 사원지에 현존하는 불탑과 불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네 유형으로 정리된다.

1. 빈 감실이 구비된 유형

조울리안 A5 · A6 스투파에는 기단과 탑신부에 구비된 감실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지 않았다. 간다라불탑의 불상은 탑과 일체형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해 부착한 것이다. 만약 파손됐다거나 인위적인 파괴가 가해졌다면 스투코로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나, 〈사진 10~11〉의 석탑 표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본래부터 불상을 부착하지 않고 감실만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석재가 그대로 노출된 지대석 구조를 통해, 먼저 석재를 쌓아 올린 다음 그 위에 석회를 발라 불탑 표면을 성형했음을 알 수 있다〈사진 10 · 11〉. 상부에 동물형 아틀라스의 두상이 관찰되고, 그 위층 면에 코린트식 기둥[19)]과 감실이 번갈아 배치된 구성이다.

감실의 외형은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기둥으로 구획된 불탑 면에 상부가 첨형 아치를 이루고 하부는 좌우로 둥글고 넓게 원형으로 벌어지는 2단 첨형 아치형[20)]과 사다리꼴형 감실이 교차 배치되었다〈사진 10-1〉.

---

15) 이글의 주제와 관련된 주된 분석 대상은 조울리안의 배탑이지만, 메인탑의 탑신에도 불상이 부착돼 함께 다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을 모라모라두의 탑에서도 볼 수 있어, 이러한 특징은 주탑과 배탑 간의 차이라기보다 간다라 지역 불탑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16) 문명대, 「JaulianⅡ 寺院址 發掘 報告」, 『강좌미술사』 25, 2005, 209쪽.

17) 기존 연구에서 중심 불탑과 28기의 소형 불탑이 건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Kurt A. Beherent,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Gandhara,* Leiden · Boston: Brill, 2004, p.20), 이글에서 조울리안 유적의 메인 스투파 주변의 배탑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것 위주로 고찰했음을 밝힌다.

18)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 간다라의 '방형' 불탑은 단순히 사각의 외형을 지칭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단 표면의 벽기둥, 코린트식 주두, 간단한 처마 받침 등이 나타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나(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 일고찰」, 『강좌미술사』 25, 2005, 117~118쪽), 이글에서는 평면이 방형인 불탑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19) 불탑 양측뿐 아니라 벽면에도 표현돼 벽체의 일부를 이루며 코린트식 주두를 갖춘 기둥을 pilaster(반기둥)이라 하는데, 이는 서양 고전주의 건축물의 특징이다(정석현 · 최성원, 『서양 건축사』, 동방미디어, 2004, 90쪽). 그러나 불탑 기단부에 조성된 이 기둥들은 상부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석탑의 隅柱 · 撑柱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다라 불탑의 벽기둥을 탱주라 부르기도 하므로(정명호, 『간다라: 동서문화의 십자로 간다라를 가다』, 한국언론자료간행위원회, 1988, 210쪽), 이글에서는 우주와 탱주로 기술했다.

20) 이 형태를 三曲아치(손신영, 앞의 글, 120쪽), 三葉型(Francine Tissot 著 · 前田龍彦 · 佐野滿里子 繹, 『GANDHARA: 圖說ガンダーラ - 異文化交流地域の生活と風俗』, 1985, 東京美術(손신영, 같은 글, 각주 8 재인용), 2단 아치형(박경식, 앞의 글, 2017, 138쪽) 이라고도 하나 감실 상단 중앙부가 뾰족한 첨형〈사진 15 · 17〉을 이루므로 이글에서는 2단 첨형 아치형으로 보고자 한다.

〈사진 10〉 A5 스투파	〈사진 10-1〉 A5 스투파 감실	〈사진 11〉 A6 스투파	〈사진 12〉 D4 스투파 우측면

그 위로 서까래와 같은 처마 받침이 장식되었고, 상면에는 동물형 아틀라스 두상이 조각된 소조상이 삽입되었다. 위쪽으로 코린트식 기둥과 감실이 배열된 층이 연달아 올라갔고 그 위에 원구형 탑신이 놓였다〈사진 10〉. 기단부와 더불어 탑신에도 기둥과 감실이 번갈아 배치되었고 상부에는 처마 받침 장엄이 가해졌다.

한편, 불감 전체가 비어있고 내부에 조상 부착 흔적이 없는 A5·A6 스투파와 달리, D4 스투파는 감실이 비어있는 것과 조상이 안치된 예가 공존한다〈사진 12〉. 또한, D4 스투파에는 동물형 아틀라스상이 감입되는 부분이 짧은 기둥 형태로 존재해, 이러한 뼈대를 만들어 여기에 진흙으로 살을 붙여 사자나 코끼리 등의 동물 스투코상을 부착·조각하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2. 감실을 갖추고 내부에 존상을 봉안한 유형

〈사진 13〉 D1 스투파	〈사진 13-1〉 D1 하단부	〈사진 13-2〉 D1 상단부

조울리안 불탑의 대다수는 D1 스투파와 같이 4면에 감실을 꾸미고 그 내부에 불상을 안치하는 유형에 속한다〈사진 13〉. 이러한 불탑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지대석 위에 동물·인물 아틀라스상을 감입하고, 그 상면에는 벽체 양측에 코린트식 기둥(隅柱)을 두고 면석에도 4개의 벽기둥(撑柱)을 첨가해 기둥 사이에 각 1개의 감실을 두었다. 감실은 2단 첨형 아치형과 사다리꼴형이 서로 번갈아 가며 배치되었다. 감실 내부에는 존상을 모셨고, 기둥과 감실 사이에도 조상을 넣었다〈사진 13-1〉. 그 상면에 처마 받침이 묘사되었고 다시 그 위에 아틀라스상을 두었다. 그리고 위층에 기둥과 감실을 같은 방식으로 마련하고 감실 내부에 상을

안치한 뒤 상부를 천장 받침 장식으로 마감했다〈사진 13-2〉.

조울리안 불탑의 아틀라스상은 모두 감실 아래서 불보살상을 받치며 불교적 위계질서를 시각화한다. 감실 하층에 놓이는 아틀라스상〈사진 14〉은 매우 비좁은 공간에 인물과 동물이 번갈아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동물상은 엎드려 두 앞발 사이에 머리를 두었고, 인물상은 두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양어깨 높이를 반듯하게 맞춰 상부를 떠받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감실의 입구를 지탱하는 아틀라스상〈사진 15〉의 경우는, 코끼리나 사자상 한 쌍이 존상 좌우에 엎드려 상부 구조물인 감실 골조를 받치며 모습으로 표현돼 불보살상에 대한 예경과 수호를 표방한다.[21)]

〈사진 14〉 감실 하층 아틀라스

〈사진 15〉 감실 입구 아틀라스

감실 내 조상은 불상과 보살상이며〈사진 14~17〉, 감실 좌우의 조상은 불상〈사진 14〉·보살상〈사진 15 우측·17〉·다양한 공양물을 들고 있는 공양자상〈사진 15 좌측·16〉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존상은 모두 좌상이고 두터운 간다라식 법의를 통견 혹은 편단 우견으로 걸쳤다.

〈사진 16〉 D1 스투파 감실 내 불상

〈사진 17〉 D4 스투파 감실 내 보살상

D1 스투파의 한 면에 구비된 감실이 10개이므로, 이 불탑 기단부 4면의 감실 내 존상만 40구이고, 감실 좌우에 감입된 조상 중 공양자상을 제외한 존상들과 감실 좌우에 세운 기둥에 부착된 불좌상〈사진 15〉까지 합산하면 불탑과 결합한 존상은 50구를 훌쩍 상회한다.

3. 감실 없이 존상을 봉안한 유형

조울리안 메인 스투파 벽체의 각 면에는 양측 隅柱 2기를 포함하여 총 6기의 撑柱를 세워 마련한 5칸에 대형 존상을 1구씩 봉안하고, 기둥 면에도 상하 종렬로 존상을 연이어 부착했다〈사진 18 동벽〉. 파손된 상

21) 간다라 아틀라스상에 대해서는 이해주,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금동반가사유상 대좌 人像柱 도상의 원류와 상징」, 『신라문화』 47, 2016, 177~182쪽을 참고할 것.

의 단면에서 드러나듯〈사진 18 남벽〉, 이 존상들은 봉헌탑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작한 스투코상으로, 벽체에 등을 댄 방식으로 불탑과 결합했으며, 자세는 좌상과 입상이 확인된다. 결가부좌한 좌상들은 선정인을 취했다.

동벽	남벽	북벽
〈사진 18〉 조울리안 메인 스투파와 불상		

메인 스투파를 둘러싼 배탑 가운데 하층 기단부가 월등히 높게 조성된 경우, A1 · A15 스투파와 같이 벽체의 4면에 따로 감실이나 기둥을 두지 않고 큼직한 존상을 직접 부착하거나〈사진 19~20-1〉, A2 · A20 · D5 스투파처럼 커다란 존상들 사이에 코린트식 기둥을 갖춘 양상이 나타난다〈사진 21~22-1〉.

〈사진 19〉 A1 스투파	〈사진 20〉 A15 스투파	〈사진 20-1〉 A15 스투파[22]

〈사진 21〉 A20 스투파	〈사진 21-1〉 A20 스투파 기둥과 존상	〈사진 22〉 D5 스투파	〈사진 22-1〉 D5 스투파 기둥과 존상

22) Kurt Behrendt, Architectural evidence for the Gandhāran tradition after the third century, *Problems of Chronology in Gandharan Art,* Oxford: Archaeopress Archaeology, 2018, p.154,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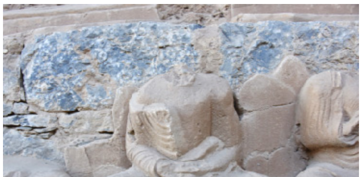
먼저, 감실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평면이 정방형인 A1 스투파〈사진 19〉와 장방형인 A15 스투파〈사진 20〉의 잔재를 통해 기단부를 석재로 축조한 뒤 석회를 두텁게 발라 마감하고, 존상을 별도로 제작해 벽체와 결합한 제작 기법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A1 스투파에는 각 면에 좌상이 1구씩 배치되었던 흔적이 남아있고, A15 스투파는 각 면에 5구 이상의 像이 부착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사진 18-1〉. 존상은 모두 좌상이며, 원형 두광을 두르고 두터운 법의를 착용하고 선정인을 결한 모습이다. 이로써 방형 기단의 한 면에 독존 혹은 존상이 다수 배열되었고, 후자의 경우 像이 다양한 크기로 표현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단부를 코린트식 기둥으로 구획하고 기둥 사이에 존상을 배치한 경우는 기둥에 존상을 조각한 A2 · D5 스투파와 그렇지 않은 A20 스투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20 스투파〈사진 21〉에는 장방형 벽체의 양측과 중앙에 기둥을 두어〈사진 21-1〉, 각 면에 2구씩 총 8구의 존상이 배치되었다. 상은 모두 좌상이며 크기가 균일하고 통견 법의를 착의했다.

장방형 기단부 양측과 벽체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을 삽입한 D5 스투파〈사진 22〉는 기둥 면에도 존상이 첨가되어 각 면에 7구씩 총 28구의 존상이 안치된 형국이다. 隅柱가 撑柱에 비해 길고 넓게 표현돼 우주의 존상이 탱주의 그것보다 크게 시각화되었다. 더불어, 기둥 사이에 놓이는 존상이 기둥의 존상에 비해 규모가 크고 돌출 배치되는 탓에 한 화면 내에 크고 작은 불상이 공존하는 양상이다〈사진 22-1〉. 존상은 모두 결가부좌한 좌상이고 원형 두광을 둘렀고 간다라 양식의 법의를 걸쳤다.

4. 감실을 구비한 존상과 그렇지 않은 존상을 함께 봉안한 유형

A8 · A19 스투파에는 상기한 유형 2와 3이 혼합된 사례가 나타난다. 높직한 하층 기단부에 석회를 발라 감실이나 기둥 없이 다수의 존상을 부착했고〈사진 23-1〉, 기단의 상층에는 감실과 기둥을 구비해 존상을 봉안하고 처마를 장식했다〈사진 23 · 24〉. 또 그 위에 다시 층을 쌓아 동물 · 인물형 아틀라스를 감입하고 상면에 감실과 기둥을 마련해서 존상을 봉안하기도 했다〈사진 23〉.

		
〈사진 23〉 A8 스투파	〈사진 23-1〉 A8 하층 기단	〈사진 24〉 A19 스투파

A8 스투파에는 하층 기단부의 각 면에 5구씩 총 20구의 대형 존상과 상층 기단부 각 면의 감실 내에 6구씩 총 24구의 소형 존상이 조성되었다. A19 스투파에는 하층 기단부 각 면에 4구씩 총 16구의 대형 존상과

상층 기단부 각 면 감실 내에 4구씩 총 16구의 소형 존상이 안치되었다. 여기에 소형 감실 좌우의 불보살상 개수를 합산하면 불탑과 결합한 존상의 수는 더 증가한다. 이를 통해 불탑의 4면에 여러 방식으로 불상을 배치하여 다양한 크기의 존상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울리안 사원지의 불탑에서는 기단의 4면에 감실을 조성하고, 불상을 조성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은 산치나 바르후트 등의 전통적인 불탑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기에 주목된다.[23]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이들 유적이 위치한 간다라 지역이 불상의 탄생지라는 사실, 즉 불상 조형을 시작한 역사성이 이 지역 불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울리안 유적지(Jaulian site, 2~3C)보다 건립 연대가 앞서는 다르마라지카 유적(Dharmarajika, 1~2C)의 중심 불탑과 그 주변의 방형 불탑에서도 감실을 갖추고 내부에 상을 모셨던 자취를 볼 수 있다. 메인 스투파의 원구형 불신에는 테라스를 중심으로 왼쪽에 5개〈사진 25〉, 오른쪽에 3개의 감실이 남아있다. 감실은 코린식 기둥 사이에 위치하는데, 상하 2단을 이루는 2단 첨형 아치와 사다리꼴이 교대로 배열되었다. 비록 현재는 감실 내부가 비어있지만, 본래 조상이 봉안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진 25〉 다르마라지카 메인탑 원구형 탑신부와 감실

〈사진 26〉 다르마라지카 봉헌탑 기단부와 감실

〈사진 26-1〉 감실 내부의 존상 자취

이 중심 불탑을 둘러싸고 축조된 여러 봉헌탑 가운데 N4 스투파 기단부에도 불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불탑의 방형 기단부 하단을 코린트식 기둥으로 장식하고 중앙부에 첨형 아치 감실을 1개를 두었는데〈사진 26〉, 그 내부에서 스투코상의 하체 조각 편이 관찰된다〈사진 26-1〉. 이러한 사례들은 불탑에 불상을 장엄하는 전통이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24]

Ⅳ. 형식 기원 문제

투루판 고창고성 및 교하고성의 대불사 불탑은 방형 기단의 상면에 다시 방형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각

23) 박경식, 앞의 글, 2020, 263~264쪽.
24) 박경식, 앞의 글, 2017, 138~139쪽.

면에는 감실이 개설돼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불탑은 기술 및 형식 면에서 간다라 지역의 불탑에 그 연원이 있다는 점과,[25] 투루판 지역에서만 건립되고 황하 유역을 비롯한 중원지역에서는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6]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은 불교문화의 전파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투루판 지역에서 확인되는 탑신에 불상을 가득 조성한 양식의 불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울리안 사원지의 불탑에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듯, 불탑은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부터 건립된 신앙의 대상이었다. 불탑과 불상을 결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그러한 실물의 완성은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정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조울리안 불탑에서 확인되는 불탑과 불상의 관계, 양자의 결합상은 바로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 유적지의 메인탑과 배탑에는 빈 감실이 표현된 것, 감실 안에 존상을 봉안한 것, 하층 기단에 감실 없이 존상을 부착한 것, 그리고 감실을 구비한 존상과 감실을 구비하지 않은 존상을 함께 결합한 것,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불탑과 불상이 결합한 불탑 양식은 양자가 서로 유리된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상징 면에서 동일함을 보여주는 有形의 자산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리보다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조형을 통해 그러한 관념을 입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조울리안 사원지의 불탑에서 정립된 건탑 관념과 아이디어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었고, 투루판에 이르러 동일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불탑으로 건립되었다. 비록 규모와 재료 면에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탑 全面에 많은 감실을 만들고 그 내부에 불상을 봉안하는 양식을 공유한다. 이 장에서는 양 지역 불탑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공통점

불탑 부재에 불상을 직접 부조하는 한국 석탑과 달리, 간다라의 조울리안 불탑과 투루판 고창고성의 대불사 불탑에는 별도로 조성한 불상이 부착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점의 기저에는 간다라와 투루판의 불탑 조성재료의 특징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조울리안 불탑은 semi-ashlar 기법으로 축조한 후 표면에 스투코를 바르고, 같은 재질로 불상을 만들어 부착했다.[27] 일정한 크기로 자른 돌을 다듬지 않고 쌓은 후 표면에 스투코를 발라 손질했기 때문에[28]

---

25) 李梦阳은 방형 평면의 쿠차지역의 불탑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미 간다라의 다르마라지카 유적에서 이미 방형 기단의 불탑이 건립되고 있어, 중국에 전해진 이후 변형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손신영, 앞의 글, 138~144쪽; 李梦阳, 龟兹地区的佛塔及相关问题研究[D]. 西安: 西北大学, 2012를 참고할 것.

26) 실크로드 상의 하서주랑이나 황하 유역에 건립된 북위 및 수·당대 건립된 불탑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전탑으로 건립되는 재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27) 박경식, 앞의 글, 2017, 139쪽.

28) 스투파 외벽에 장식되는 존상은 노천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스투코가 쓰였다. 반면, 감실 내부를 장식하는 소조상은 스투코와 점토, 테라코타 중 한 가지가 쓰이거나 점토와 테라코타가 병용되었다. 외부에 노출되면 쉽게 훼손되고 부서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울리안 사원지에 현재까지 다수의 소조상들이 남아있는 까닭은 화재로 인해 모두 테라코타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태영(덕해), 「불탑 숭배와 법화경 신앙」, 『강좌미술사』 55, 2020, 232쪽.

불탑과 일체형인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투루판 고창고성의 대불사를 비롯한 투루판 분지 일대의 불탑들은 현지 고유의 生土技法을 사용해[29] 황토로 조성된 벽돌로 탑의 형태를 구성한 뒤 그 표면에 진흙을 발라 코팅했다. 즉, 사암질 석재와 황토가 풍부한 간다라와 투루판의 자연환경이 탑의 재료와 건탑 기법의 공통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 조성 시에도 간다라에서는 석회에 모래 등을 개어서 굳힌 스투코를 투루판에서는 점토를 사용했다. 그로 인해 불탑에 봉안되는 양 지역 불상들은 크기 차는 있을지언정 소조불이라는 재질 면의 특징을 공유한다. 조울리안과 고창고성·교하고성의 불탑에 봉안된 불상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다루기 수월한 재료를 이용해 형태를 만들었고, 외부에 노출되면 쉽게 훼손되고 부서지는 소조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운 점토로 재차 표면을 덧씌운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불탑의 4면에 수많은 불상을 조성하는 양식은 간다라 지역에서 천불신앙이 성행했음을 알려주는 징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0] '千佛'에서 '千'은 매우 많음을 뜻하며, 대개 같은 크기의 소형 불상이 반복적으로 배열되는 형식으로 시각화되었다.[31] 도상에서도 千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어, 千은 常數로 지칭된 것이 아니라 관용어구로 파악된다.

조울리안 유적이 2세기 후반~3C 쿠샨왕조대에 창건되어 5세기경 화재로 폐허가 된 사지인 점을 고려할 때,[32] 불탑에 불상이 부착된 시점은 늦어도 5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의 건립 시기는 동국대학교 학

---

29) 실크로드 상에 남아있는 불탑 대부분이 황토로 조성된 흙벽돌을 이용해 탑신 형태를 구축한 후, 표면에 고운 점토를 발라 마감하는 방법으로 건립되었다. 模拉克은 이를 간다라 불탑의 외형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模拉克 外, 「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 『建筑学报』 S1期, 2015.

30) 현전하는 천불상 중 가장 이른 예는 5C 초에 조성된 병령사 169굴 남벽의 소조상(420)이고, 인도에서는 5C 후반에 건립된 아잔타 2굴 벽화〈사진 27〉이다. 인도에 남아있는 천불도는 5C 후반작이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예에 해당하지만, 후한대 한역된 『阿閦佛國經』, 『道行般若經』, 『大明度經』 등의 경전에 이미 '千佛'이 등장한다(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전탑 천불상 연구」, 『선사와 고대』 44, 2015, 42~51쪽). 『아촉불국경』 T.0313에서는 "東方去是千佛刹有世界名阿比羅提.(1059b17-18)"; "是陂陁劫中當有千佛 甫始四佛過 菩薩摩訶薩欲見是諸佛者當願生阿閦佛刹.(1069b06-08)" 『도행반야경』 T.0224에는 "是非一輩學各各有行 若有已供養若干百佛若干千佛悉見已於其所皆行淸淨戒已.(0700c14-16)"; "四天王諸釋梵及諸尊天悉承佛威神念諸 千佛皆字釋迦文其比丘者皆字須菩提 問般若波羅蜜者皆如釋提桓因.(0704a13-16)"와 같이 천불이 언급되었고, 『대명도경』 T.0225에는 "三千大千諸釋梵四天王諸尊天王 一切皆來爲佛作禮繞三帀却住一面念千佛號字形容被服所出國土皆如釋迦文.(0913a03-06)"과 같이 천불의 명호·모습·복식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인도에서 늦어도 1C 경에는 천불 개념이 성립했고, 불교미술 초기부터 천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임을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간다라 사원지에서 가장 중요한 탑원을 둘러싼 연립형 불감에 수많은 불상이 봉안되고(이주형, 「간다라 불교 사원의 造像 奉安 樣式과 그 意味」, 『미술사연구』 8, 160~161쪽), 봉헌탑 4면에 수많은 불상이 부착된 양상도 千佛이 등장하는 경전의 성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위성 大神變에 천불화현이 삽입된 것도 천불사상의 유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붓다가 사위성에서 보인 신변 서술 내용은 점차 시대가 내려오면서 다른 곳에서 보인 신변들보다 장엄하고 특별하게 변화하는데, 그중 하나가 붓다가 千葉蓮華에 앉아 무수한 佛을 化現하게 만든 神變이다. 이러한 전승의 변화 시점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천불화현이 기록된 문헌 가운데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Asokavadana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기원후 2C 이전, 아마도 기원 전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이주형, 「佛傳의 「舍衛城神變」 說話」, 『진단학보』 76, 1993, 165~170쪽). 이는 천불이 언급된 경전의 성립시기와 부합된다. 앞서 언급한 아잔타석굴의 천불도는 천불사상이 인도 서부까지 퍼진 증거로 볼 수 있다. 만일 천불에 대한 경전의 언급이 없었고, 그러한 경전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도상적 유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간다라와 인도에 조형 예가 많지 않은 천불상·천불도가 오히려 중국에서 활발히 조성(북제시대 천불비상)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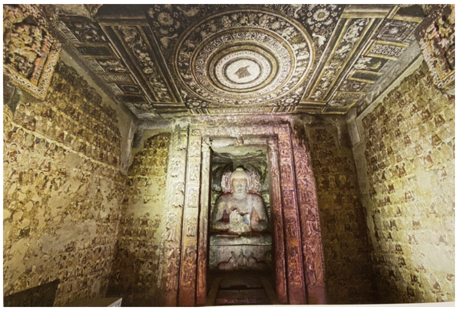
31) 安田治樹, 「千佛圖に ついて」, 『大和文華』 106, 大和文華館, 2001, p.24.

32) Kurt A. Beherent, *op. cit.*, 2004, pp.25~26.

술조사단의 조울리안 사원지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추론된 바 있다.[33] 결국 조울리안 유적의 조성연대는 간다라에서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하여[34]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시기와 부합한다. 따라서 불상의 탄생과 이어지는 천불신앙의 유행은 이러한 양식의 불탑을 건립하는 신앙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더불어 조울리안 불탑과 궤를 같이하는 천불의 양상은 아잔타석굴의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5세기 후반에 그려진 아잔타석굴 제2굴 감실 입구 좌우 벽면의 천불도가 대표적인 예인데〈사진 27〉, 이 그림에는 원형 두광을 갖추고 통견·편단우견의 착의 형식을 한 소형 불상들이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벽면 전체에 층층을 이루며 빈틈없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었다〈사진 27-1〉.

이 천불도는 조울리안 사원지의 봉헌탑 全面을 가득 채운 수많은 불상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포된 천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5]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근간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불탑 양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되어 투루판의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의 대불사 불탑 건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7〉 아잔타 2굴 천불도, 5C 후반	〈사진 27-1〉 천불도

2. 차이점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과 조울리안 불탑 사이에는 상기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도출된다. 바로 불탑의 정면에 표현된 대형 감실〈사진 1〉 및 그 내부에 봉안되었을 불상의 존재이다. 간다라 지역에 건립된 불탑 가운데, 前面에 등신대 불상 1구를 조성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5세기 후반에 건립된 아잔타석굴

33) 각주 15 참고.

34) 간다라에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카니슈카 기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기 1C의 어느 때라 생각된다(이주형, 「불상의 기원」, 『미술사논단』 3, 1996, 366~380쪽). 현재 전하는 쿠샨 왕조대의 석조 불상들 이전에 어떠한 불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 유물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확립된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여진다.

35) 조울리안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불탑의 모든 면에 불상이 새겨진 것은 아니지만, 다르마라지카 메인 스투파나 모라모라두 유적 등 간다라 지역의 불탑에서는 기단과 탑신에 불상을 부착한 예가 남아있다는 데 주목하여 불탑 부조상의 기원을 간다라에서 찾은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박경식, 앞의 글, 2017, 135~165쪽.

제19굴과 제26굴의 불탑에서 이러한 사유의 일단이 파악된다.[36)]

19굴에는 석주형으로 조성된 불탑의 前面에 기둥과 보개로 이루어진 감실이 개설되었고 그 안에 등신대 불입상 1구가 조각되었다〈사진 28〉. 상륜부의 원형 산개 각 층에서는 인물형 아틀라스상이 두 팔을 들어 받치고 있다. 더불어 26굴에서는 불탑의 앞면에 세운 한 쌍의 기둥 사이에 등신대 불의좌상이 부조되었다〈사진 29〉. 불탑의 정면 중앙에 대형 불상 1구가 불탑을 이룬 암석과 한 몸에 새겨짐으로써, 불탑과 불상의 상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관념이 시각화되었고, 근본적으로 일체인 불탑과 불상의 관계가 분명하게 가시화되었다.[37)]

〈사진 28〉	〈사진 29〉

28. 아잔타석굴 제19굴 불탑, 5C
29. 아잔타석굴 제26굴 불탑 정면·측면, 5C

아잔타 석굴에 조성된 불탑의 사례는 불상과 불탑이 신앙상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는 인식이 조형물로 가시화된 결과라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식의 불탑이 인도나 간다라에서 더이상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그다지 유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의 불탑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카스(喀什) 인근에 위치한 모르불사유지(莫尔佛寺遺址)에 현전하는 2기의 불탑 중 東塔을 꼽을 수 있다. 漢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38)] 이 불탑은 3단으로 구축된 방형 기단의 상면에 원구형의 탑신을 올린 완연한 간다라 양식의 탑이다. 다만, 재질은 간다라 불탑과 달리 석재가 아니라 진흙 벽돌로 기단과 탑신을 구축한 뒤 고운 진흙으로 탑 전체를 발랐다. 불탑의 한쪽 면에는 높직한 1단의 턱을 두고 상면에 예불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고〈사진 30〉, 지면에서 기단의 상면으로 오르는 계단을 설치했다. 기단의 벽면은 수직면으로 손질했으며, 좌·우에 층단형 벽체가 형성돼 감실의 형태를 띤다. 조성 시에는 대형 불입상이 감실의 내벽에 해당하는 수직 벽면에 등을 대는 방식으로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탑의 정면에 불상을 봉안한 예는 쿠차 키질석굴(克孜爾石窟) 38굴과 171굴에서 볼 수 있다.[39)] 즉, 키질석굴의 불탑은 탑신 前面에 개설된 감실 내부 양측에 기둥을 두고, 감실 입구 좌우에 여닫이 문짝을 달거나

36)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New York: Weatherhill Inc, 1993, pp.249~251. 아잔타석굴 26굴의 불탑 양식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이해주, 「아잔타석굴 제 26굴 불탑부조 불의좌상 고찰」, 『신라문화』 53 178~187쪽을 참고할 것.

37) 형식적으로 볼 때, 성소의 중심부에 불탑이 조성됐으므로 불탑 신앙의 우월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징적 측면에서 볼 때, 불탑의 정면 중앙에 불상이 양각된 26굴 불탑은 단순히 불탑 앞에 붓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붓다가 그 불탑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차이티야당에서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위치인 불탑의 정면에 등신대 독존 불상 1구를 직접 새겨 불탑과 불상이 不二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디트리히 젝켈·이주형, 『불교미술』, 예경, 2002, 160~161쪽; 이해주, 앞의 글, 2019, 179쪽, 184~196쪽.

38) 張馭寰, 『中國佛塔史』, 科學出版社, 2006, 7쪽.

39) 新疆美術撮影出版社 編, 「克孜爾」, 『中國新疆壁畫全集』 1, 新疆美術撮影出版社, 1995, 93쪽, 181쪽. 이 불탑 벽화의 제작 시기는 키질석굴의 초창기인 3C 말~4C 중엽으로 추정된다. 같은 책, 3쪽.

〈38굴, 사진 31〉, 아치형 감실만 단출하게 개설하여〈171굴, 사진 32〉 불좌상을 안치했다.

키질석굴의 벽화를 통해 파악되는 불탑과 불상의 관계는 초기 탑의 경우, 사리함과 탑에 좌불을 그리는 두 형식이 공존했는데, 후에 탑의 사리함은 塔中坐佛 스타일로 대체되었고, 나중에는 탑의 기단 정면에 계단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甬道에 불탑이 대거 배열되는 양식으로 변화해 나아가, 점차 불상의 수량이 늘어나더니 마침내 千佛 제재로 귀결되었다.[40] 따라서 키질석굴에서 확인되는 불탑의 양상은 간다라의 조울리안 사원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탑 양식이 쿠차를 통해 투루판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30. 카스 莫尔佛寺遺址 불탑, 후한대
31. 쿠차 克孜爾石窟 38굴 불탑, 3C 말~4C 중엽
32. 쿠차 克孜爾石窟 171굴 불탑, 3C 말~4C 중엽
33. 吐峪溝石窟44굴 불탑, 4~7C

세부적인 외형 차이는 존재하지만, 간다라에서 시작해 쿠차를 거쳐 투루판 지역으로 전파된 '탑신에 불감을 만들고 불상을 모시는 불탑 형식'이 토육석굴의 벽화에도 시각화되었다〈사진 33〉.[41] 투루판 인근에 위치한 이 석굴에 그려진 44굴 벽화에서 불탑은 벽면을 장식한 千佛圖를 배경으로 탑의 정면에 아치형 감실을 갖추고 내부에 선정인을 결한 불좌상을 모셨다.

이상에서 보듯, 투루판 불탑에 구현된 형식, 즉 정면에 대형불상 1구를 봉안하는 아이디어와 구조는 아잔타 석굴에서 시작되어 카스의 모르유적과 쿠차의 키질석굴 벽화를 거치며 전승돼, 고창고성의 대불사 불탑을 위시한 교하고성과 그 일대에 부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40) 이러한 양식의 불탑은 6C 전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질 석굴 불탑에 대해서는 杨淑红,「克孜爾石窟壁畫中的佛塔」,『新疆師範大學學報』, 哲学社会科学版, 2006을 참고할 것.

41) 新疆美術撮影出版社 編,「吐峪溝」,『中國新疆壁畫全集』6, 新疆美術撮影出版社, 1995, 19쪽. 불탑이 그려진 44굴은 고창국 시기(327~640)에 조성된 것으로 비정된다. 같은 책, 3쪽.

Ⅴ. 결 론

지금까지 투루판 고창고성과 교하고성 내 불교 사원지에 건립된 불탑 중 탑의 4면에 다수의 불감을 만들어 많은 불상을 봉안하는 특수한 형태의 불탑에 주목하여 탑의 全面에 불상을 안치한 불탑의 양식적 기원을 고찰했다.

Ⅱ장에서는 투루판 고창고성과 교하고성에 건립된 全面에 불상이 봉안된 불감형 불탑의 존재와 특징을 확인했다. 모두 탑신의 4면에 감실을 조성하고 불상을 봉안했는데, 특히 고창고성 대불사 불탑에서는 탑의 정면에 거대한 주형감실을 만들어 1구의 대형불상을 안치했고, 나머지 3면에도 다수의 소형 불감을 만들어 72구의 소불상을 봉안한 흔적을 파악했다.

Ⅲ장에서는 조울리안 사원지에 건립된 다양한 불탑 유형을 검토했다. 이들은 주로 탑 기단부에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봉안한 양식으로 건립되었고, 불탑과 결합한 조상은 모두 스투코상으로, 석회를 발라 벽체에 접착한 것이다. 불탑은 빈 감실만 표현된 것, 감실 안에 존상을 봉안한 것, 하층 기단에 감실 없이 존상을 부착한 것, 그리고 감실을 구비한 존상과 감실을 구비하지 않은 존상을 함께 결합한 것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불탑의 전면에 감실을 조성하고, 이에 불상을 봉안하는 불탑의 양식은 간다라지역에서 기원했음을 파악했다.

더불어, 산치나 바르후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불탑이 간다라 지역에서 건립된 배경으로, 불탑과 불상이 신앙과 상징 면에서 동일하다는 관념과 천불신앙을 꼽았다. 이는 간다라 지방이 불상의 탄생지라는 사실, 즉 불상 조형을 시작한 역사성이 이 지역 불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Ⅳ장에서는 투루판과 간다라 불탑과의 비교를 통해 방형 불탑의 모든 면에 불상을 안치한 탑의 특징을 구명했다. 양자 간에는 탑·불상의 조성방법 및 탑의 4면에 감실을 만들어 내부에 불상을 봉안한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방형 불탑의 全面에 감실을 조성하고, 그 안에 불상을 장엄한 불탑은 간다라 지역 특히 조울리안 유적의 불탑에 양식 및 사상적 기원이 있음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투루판에서는 간다라와 달리 탑신의 정면에 감실을 갖추고 대형불상 1구를 안치한 형식이 나타난 차이점도 파악했다. 그렇지만 이 형식 역시 인도 아잔타석굴에 등장해 실크로드 상의 카스에 건립된 모르 유적과 쿠차 키질석굴에 그려진 벽화를 거치며 전승됐고 고창고성의 대불사 불탑을 위시한 교하고성과 그 일대에 부활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문헌〉

『阿閦佛國經』, 『道行般若經』, 『大明度經』

디트리히 젝켈·이주형, 『불교미술』, 예경, 2002.

정명호,『간다라: 동서문화의 십자로 간다라를 가다』, 한국언론자료간행위원회, 1988.
정석현 · 최성원,『서양 건축사』, 동방미디어, 2004.
張馭寰,『中國佛塔史』, 北京: 科學出版社, 2006.
新疆美術撮影出版社 編,『中國新疆壁畫全集』1 · 6, 烏魯木齊: 新疆美術撮影出版社, 1995.
李尚,『交河故城的形制布局』, 北京: 文物出版社, 2003.
李梦阳, 龟兹地区的佛塔及相关问题研究[D]. 西安: 西北大学, 2012.
Kurt A. Beherent,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Gandhara, Leiden · Boston: Brill, 2004.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New York: Weatherhill Inc, 1993.

문명대,「JaulianⅡ 寺院址 發掘 報告」,『강좌미술사』25, 2005.
박경식,「교하고성 내 불탑에 관한 고찰」,『문화사학』54, 2020.
박경식,「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동양학』67, 2017.
손신영,「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一考察」, 강좌미술사』25, 2005.
양은경,「중국 운강석굴 상부 북위 불교사원지의 가람배치와 동서 문화교류」,『한국상고사학보』92, 2016.
이태영(덕해),「불탑 숭배와 법화경 신앙」,『강좌미술사』55, 2020.
이진호,「통일신라시대 전탑 천불상 연구」,『선사와 고대』44, 2015.
이주형,「佛傳의「舍衛城神變」說話」,『진단학보』76, 1993.
이주형,「간다라 불교사원의 造像 奉安 樣式과 그 意味」,『미술사연구』8, 1994.
이주형,「불상의 기원」,『미술사논단』3, 1996.
이해주,「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반가사유상 대좌 人像柱 도상의 원류와 상징」,『신라문화』47, 2016.
이해주,「아잔타석굴 제 26굴 불탑부조 불의좌상 고찰」,『신라문화』53, 2019.
이해주,「운강석굴의 간다라 모티프와 그 함의: 탑형부조를 중심으로」,『문화사학』56, 2021.
模拉克 外,「丝绸之路新疆段佛塔特征研究」,『建筑学报』S1期, 2015.
安田治樹,「千佛圖に ついて」,『大和文華』106, 大和文華館, 2001.
杨淑红,「克孜爾石窟壁畫中的佛塔」,『新疆師範大學學報』, 哲学社会科学版, 2006.
Kurt Behrendt, Architectural evidence for the Gandhāran tradition after the third century, Problems of Chronology in Gandharan Art, Oxford: Archaeopress Archaeology, 2018.

* 이 논문은 2022년 3월 10일에 재투고되어,
2022년 3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4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Stupa with Enshrined Buddhist Statues on four Sides: Centered on the Stupas in the Turpan and Gandhara Regions

Lee, Haiju*

Among the stupas in the ancient cities of Gaochang and Jiaohe in Turpan, a special type of stupa that does not appear at all in the brick stupas of the Tang era in the Yellow River Basin exists. It is a special type of earth turret that enshrines many Buddhist statues by creating numerous Buddhist altars on the four sides of the square stupa. In particular, the stupa of Dafosi in the ancient city of Gaochang attracts attention because it contains traces of a tabernacle on the front of the stupa, enshrining one large Buddhist statue, and large and small tabernacles on the other three sides enshrining small Buddhist statues. In order to study the stylistic origins of the stupas enshrined with Buddhist statues on all sides of the stupa, stupas in Dafosi in the ancient cities of Gaochang and Jiaohe and stupas built with similar style in nearby areas were examined in Chapter II, remains of the Jaulian Temple and stupas with similar style that are distributed in the surrounding area among the stupas in the Gandhara region were investigated in Chapter III. Through this, the style of combining the separately produced Buddha statues with the stupa was understood to have originated from Gandara. Creating a new style of stupa like this was seen as an attempt to express the notion that the stupa and the Buddhist statues were the same in terms of faith and symbol, rather than objects that were in a disengaged relationship. In Chapter IV,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pa in which Buddhist statues were placed on four sides of the stupa were reveal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stupas of Turpan and Gandhara. The natural environment of Turpan and Gandhara was designated as the background of the stupa construction technique shared by both sides. For the background of the style in which the four sides of the stupa are impressed with numerous Buddhist statues, faith of one thousand Buddhas was pointed out. In addition to these commonalities, the differences were pointed out to be the large tabernacle expressed in front of the stupa and the existence of a large Buddhist statue that would have been enshrined in it. The reason is due to the fact that a case of enshrining a large Buddhist statue in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the front of the pagoda like that of the pagoda of Dafosi in the ancient city of Gaochang has not been identified in the stupas in the Gandhara region, and such examples can be confirmed in the stupas in Cave 19 and Cave 26 of the Ajanta stone cave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is style began at the Ajanta Stone Cave and passed down through the Mor ruins of Kashi and the Kizil Stone Cave murals of Kucha, and was revived in the district around the ancient city of Jiaohe, beginning with the stupa of Dafosi in the ancient city of Gaochang.

[Keywords] Turpan, the stupa of Gaochang and Jiaohe ruins, the stupa with enshrined Buddhist statues on four sides, Gandhara, Stupa of the site of Jaulian, Stupas in Ajanta Cave 19 and 26, Mor ruins, Kizil Stone Cave murals